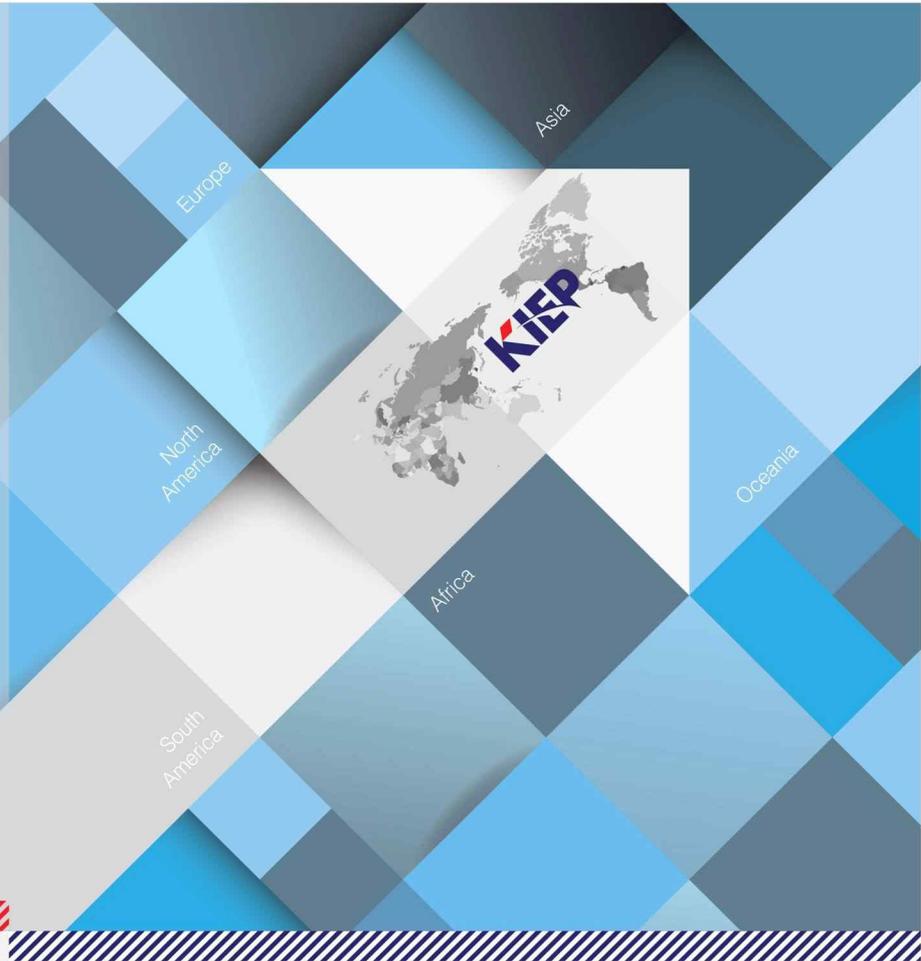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23-06

2023년 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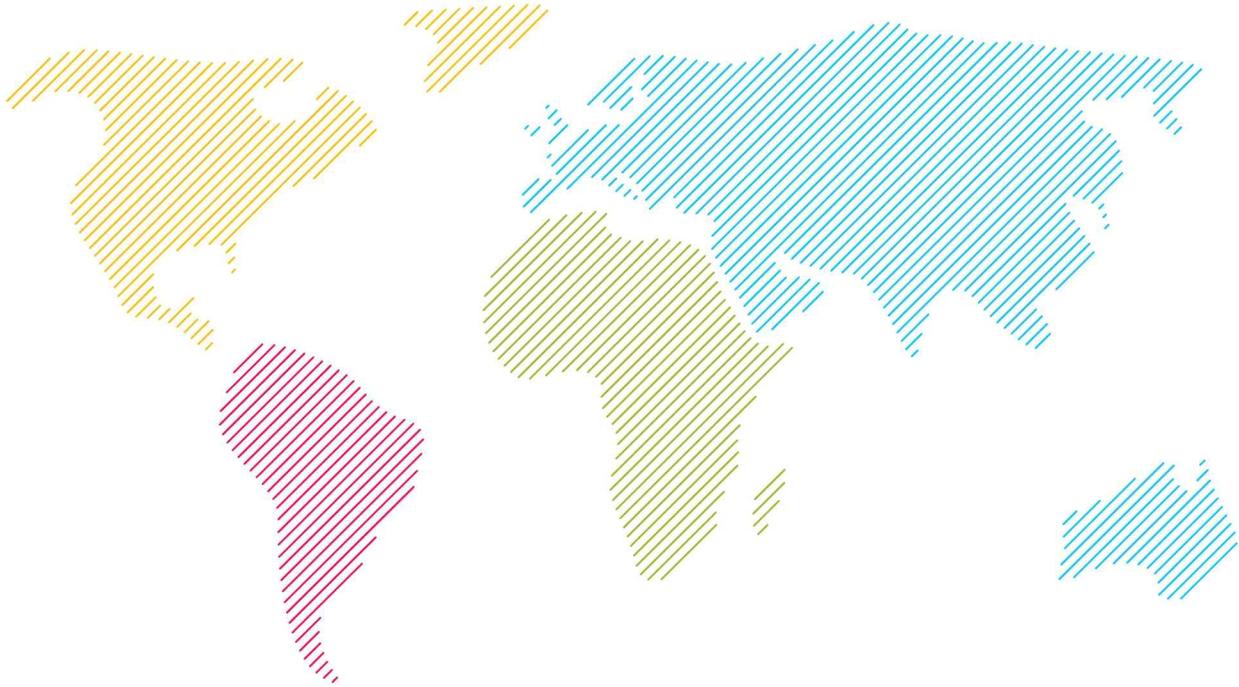
#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및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및 시사점

## 요약

-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ensex가 2020~22년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여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23일 29,981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인도의 Sensex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60,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의 주가지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인도 주가지수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개인 투자자 증가, 인도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인도 거시 경제 안정성 등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 대면활동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수입원을 모색하였고, 전자 신원 인증 시스템(e-KYC),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UPI)와 같은 인도 금융시스템의 빠른 디지털화는 개인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동력이 되었음.
  - 최근 3년간 5,000만 개가 넘는 주식계좌(Demat account)가 생성되었으며, 인도 개인 투자자로부터 유입된 투자금은 약 2조 8,000억 루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금의 3배 규모임.
  - 인도 정부가 시행한 세제 혜택, IPO 장려,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 확대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대규모 인프라 예산 할당과 같은 성장 정책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인도는 코로나19 감소세를 바탕으로 2022년 민간소비가 회복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기업의 매출액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 ▶ 인도의 경제성장률과 금융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인도의 주식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국으로서 인도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는 2020년 4월 국제금융서비스센터국(IFSCA)을 설립했으며, 2022년 7월 인도 최초의 국제금융거래소인 IIBX를 출범시키는 등 인도를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 성장시키 고자 함.
  - 아다니 그룹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Sensex는 평균 59,256포인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인도의 투자자들은 최근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등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추세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와 자본시장 정보 공유,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한 대인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인도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차 례

1. 연구 배경
2. 인도 주식시장 개요
3. 최근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
  - 가. 개인 투자자 증가
  - 나. 정부의 투자 환경 조성
  - 다. 인도의 거시경제 안정성

### 4. 시사점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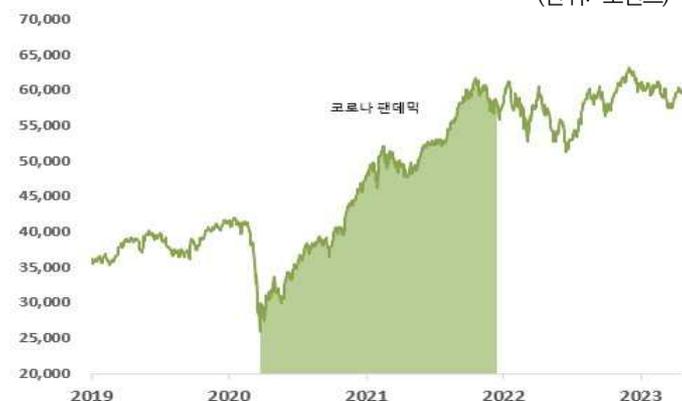
## 1. 연구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ensex<sup>1)</sup>는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최근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29,981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인도의 Sensex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며 2021년 하반기에 사상 최고치인 60,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그림 1 참고).
-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신흥국이 코로나 충격으로 대규모 주식자금 유출을 경험한 것과는 달리 2020년 상반기부터 대인도 유입액이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234억 달러 수준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음.<sup>2)</sup>
- GDP 대비 시가 총액의 경우, 인도는 2019년 77.4%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103.8%를 기록하며 26.4%p 상승세를 보임(그림 2 참고).

그림 1. 인도 Sensex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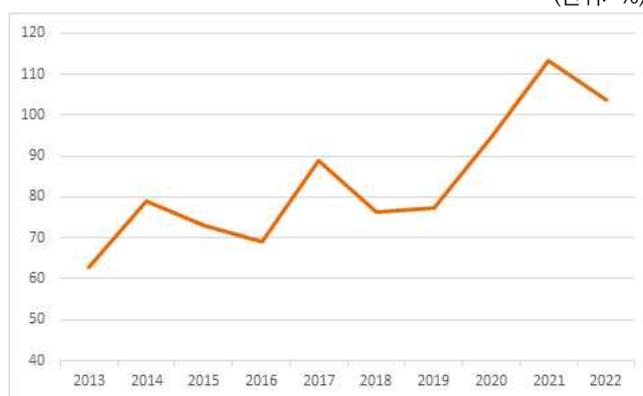
(단위: 포인트)



자료: CEIC(검색일: 2023. 4. 10).

그림 2. 인도 GDP대비 시가 총액(최근 10년)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23. 4. 10).

■ 아울러 인도의 주가지수는 미국 및 중국의 주가지수 성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 참고).

- 인도의 Sensex 주가지수 수익률은 2020년 13.5%, 2021년 21.7%로 2년 평균 17.6%로 나타났으며, 미국(12.9%), 중국(10.6%)의 수익률보다 높음.<sup>3)</sup>
  - o 1991년~2022년 인도 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미국(8%), 중국(10.8%), 한국(4.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sup>4)</sup>

1) Sensitive Index.

2) 이는 2012년(245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임. 신술위(2021), p. 2.

3) 수익률 = (마지막 일 종가 - 시작일 종가)/시작일 종가, 미국은 NYSE 종합지수, 중국은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4) 미래에셋 리서치(2022), p. 6.

그림 3. 인도 및 주요국 주가지수 퍼포먼스 비교



주: 국가별 지수는 인도 Nifty, 중국 상해종합지수, 미국 S&P 500, 한국 KOSPI, Nifty는 Sensex와 함께 인도의 대표 주가지수임.  
자료: 미래에셋 리서치(2022), p. 6.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자료는 인도 주식시장을 소개하고 최근 인도의 주가지수가 급등한 배경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글상자 1. 세계 주요 거래소 비교

- 2023년 2월 기준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의 시가 총액은 약 3조 2,000억 달러로 세계 8위 규모이며,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 홍콩, 일본을 이어 세 번째로 큰 주식시장임.
- 세계 주요 거래소의 상장 주식 시가 총액은 미국의 NYSE, Nasdaq이 각각 22조, 18조 달러 규모로 가장 크며, 이어 중국, 유럽, 일본, 홍콩, 인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거래소	상장 주식 시가 총액 (십억 달러)	상장기업 수 (개)	거래량 (십억 달러)
NYSE(미국)	22,649	2,812	1,769
Nasdaq(미국)	18,003	1,952	1,697
Shanghai Stock Exchange(중국)	7,265	2,179	782
Euronext(유럽)	6,626	1,962	219
Japan Exchange Group (일본)	5,650	3,871	427
Shenzhen Stock Exchange(중국)	5,214	2,744	1,082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홍콩)	4,972	2,605	242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인도)	3,279	2,179	123
LSE Group London Stock Exchange(런던)	3,259	1,925	82
Korea Exchange(한국)	1,828	2,474	210

자료: WFE, Market Statistics(검색일: 2023. 4. 24).

## 2. 인도 주식시장 개요

### ■ 인도의 주식시장에는 봄베이증권거래소(BSE)와 국립증권거래소(NSE)라는 두 개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있음.<sup>5)</sup>

- 봄베이 증권거래소(Bombay Stock Exchange)는 1875년 설립된 인도 최초의 증권 거래소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sup>6)</sup> 2023년 3월 기준 6,0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
  - o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BSE의 대표 인덱스인 Sensex(Sensitive Index)는 인도의 주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Sensex 주가지수는 BSE에 상장된 주요 30개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함.
  - o 2014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자거래플랫폼인 BOLT(Bombay Online Trading System)를 도입하며 거래방식을 디지털화하고 있음.
- 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는 BSE보다 117년 뒤인 1992년에 설립되었으나 전자거래플랫폼을 BSE보다 먼저 도입하였음.
  - o 2023년 3월 기준 2,000여 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NSE의 주가지수인 Nifty 50은 NSE에 상장된 주요 50개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함.

표 1. BSE 및 NSE 비교

구분	BSE	NSE
설립	1875년	1992년
대표 주가지수	S&P BSE Sensex (시가 총액 상위 30개 기업)	Nifty50 (시가 총액 상위 50개 기업)
상장 기업 수	6,655	2,013
시가 총액	3조 1,381억 달러	3조 2,600억 달러
주소	www.bseindia.com	www.nseindia.com

주: 시가총액, 상장기업수는 2023년 3월 말 기준.

자료: BSE, NSE 홈페이지(검색일: 2023. 4. 17).

- 한국의 주요 주가지수인 코스피는 대형 우량주 위주이며 코스닥은 신주 위주인 것과는 달리 BSE(Sensex)와 NSE(Nifty)는 동일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음.
  - o 거래량은 NSE가 BSE보다 많은데, 이는 NSE가 1994년 전자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BSE보다 20년 먼저 현대식 증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sup>7)</sup>

### ■ 2023년 4월 기준 BSE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타타 컨설턴시

5) BSE와 NSE 외에도 캘커타증권거래소, 메트로폴리탄증권거래소, 국립 상품 및 파생상품 거래소 등이 있으나 거래량을 고려하여 본 자료에서는 제외함.

6) History and Milestone-BSE, BSE 홈페이지(검색일: 2023. 4. 17).

7) 이에 최근에는 NSE의 Nifty 50이 BSE Sensex 지수보다 더 많이 활용되기도 함.

서비스(TCS), HDFC 은행, ICIC 은행, 힌두스탄 유니레버(HUL), ITC, 인포시스(Infosys), HDFC, SBI(State Bank of India),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로 금융 및 IT 분야, 일용소비재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시가 총액이 전체 시가 총액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 총액은 인도 전체 시가 총액의 22%로 집계됨.

표 2. 인도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순번	기업	시가 총액(천만 루피)	산업	비중(%)*
1	Reliance Industries	1,637,201	에너지, 석유화학, 천연가스, 소매, 통신	6%
2	Tata consultancy Services	1,163,688	IT 서비스	4%
3	HDFC Bank	944,802	은행	4%
4	ICIC Bank	644,769	은행	2%
5	Hindustan Unilever	584,167	소비재	2%
6	ITC	530,862	소비재	2%
7	Infosys	526,597	IT 서비스	2%
8	HDFC	512,208	금융(모기지)	2%
9	SBI	508,881	금융	2%
10	Bharti Airtel	441,375	통신	2%

주: 해당 기업의 시가 총액을 전체 시가 총액에서 나눈 값  
자료: BSE 홈페이지(검색일: 2023. 4. 17).

■ 인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프로모터(promoter)이며, 국내 기관 투자자(정부 포함), 해외 투자자, 개인 순으로 나타남.

- ‘프로모터(promoter)’는 인도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는 프로모터를 (1) 회사의 발행 문서나 연례 보고서에서 프로모터라고 명시된 사람, 혹은 (2) 주주(shareholders), 이사 혹은 기타 자격으로 회사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3) 이사회가 통상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언,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sup>8)</sup>
  - o 프로모터 조합(promoter group)은 법인 혹은 단체(2명 이상의 개인이나 2개 이상의 회사) 혹은 개인과 회사로 구성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20% 이상 출자함.<sup>9)</sup>
- 2022년 12월 기준 NSE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살펴본 결과, 프로모터가 약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4 참고).
  - o 인도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프로모터 지분은 50%이며, 인도 최대 소비재 기업인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프로모터 지분은 61.9%로 조사됨.<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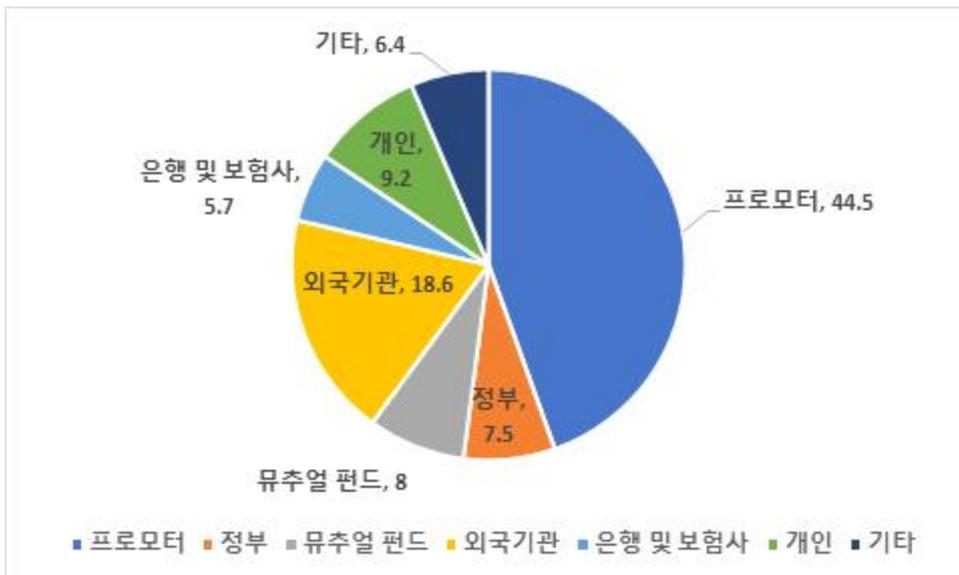
8) 인도의 프로모터는 우리나라 상법상 발기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 회사의 주식을 최대 75%까지 보유할 수 있음. 최근 인도 자본시장의 여러 변화를 고려해 SEBI는 프로모터 개념을 수정하며 사모펀드, 연기금, VC 등도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person in control)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Legal service in India, <https://legalserviceindia.com/legal/article-7639-promoter-to-person-in-control-approach-of-sebi.html>(검색일: 2023. 4. 10).

9) Ibid.

10) Trendlyne.co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17).

그림 4. 인도 기업의 주주구성(2022년 12월 기준)

(단위: %)



주: 인도 기업은 NSE에 상장된 기업을 뜻함.  
자료:NSE(2023), India Ownership Tracker, p. 1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주식을 포함한 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도 증권 시장의 개발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SEBI는 1992년에 설립되어 인도의 모든 증권 거래 및 관련된 규제, 감독, 검토, 인가 등을 담당하고 있음.
- SEBI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Contracts Regulation Act)을 시행하며, 인도 증권시장에 관한 모든 규제와 지침을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및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함.

그림 5. 인도 주식시장 규제 체계



자료: 도이치 뱅크(2020), p. 24 인용.

■ 해외 투자자(FPI)는 SEBI에 FPI로 등록 후 투자 허가(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파생 계약 상품 등에 투자가 가능함.<sup>11)</sup>

- 2014년 SEBI는 기존에 구분했던 외국 기관 투자자(FI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와 적격 외국인 투자자(QFI: Qualified Foreign Investors)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 Foreign Portfolio Investors)'로 통합하였음.<sup>12)</sup>
  - o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외국 정부 및 정부 관련 외국인 투자자 △법인, 대학 기금, 연기금 등을 포함한 펀드 △그 외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대상으로 구분함.
- SEBI 등록 및 거래를 위해서는 법적 대표 선임 및 지정 중개인(DDP: Designated Depository Participant) 선택, 세무 자문가 선임, 국내 예탁업자 선임, 지정 은행 결정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 3. 최근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

#### 가. 개인 투자자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개인 투자자<sup>13)</sup>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및 재택근무<sup>14)</sup> 등으로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거래 및 투자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sup>15)</sup>
  - o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주식시장을 학습하는 한편 대체 수입원을 모색했고, 인도 증시 활황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도 신규 계좌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배경으로 분석됨.<sup>16)</sup>
- 인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20년 3월 8.4%였으나 2021년 12월 9.7%로 증가하였음.<sup>17)</sup>
-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신규 주식 계좌(Demat account) 수는 지난 10년래 최대치인 490만 개였으며, 2021년 총 주식 계좌 수는 전년대비 약 55% 증가해 5천만 개를 넘은 것으로 집계됨.<sup>18)</sup>
- 지난 6년간 인도 주식 거래 활동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개인 투자자의 주식거래는 전체의 33%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4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7 참고).

11) 도이치 뱅크(2020), p.37~43을 참고해 요약함.

12) NSDL, <https://www.fpi.nsdl.co.in/web/Default.aspx>.

13) 인도 SEBI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retail investor)는 20만 루피(원화 약 300만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1) 계좌 개설을 통한 직접 투자, 2) 뮤추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로 나눌 수 있음.

14)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봉쇄를 시행하였고, 2020년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5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음. 인도 정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도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였음.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2021년 4월에 2차 봉쇄 조치하였음.

15) 코로나19 봉쇄 초기에는 뮤추얼펀드보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거래가 증가했으며, 특히 푸네,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와 같은 신흥 도시에 거주하는 20~30대가 적극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됨. Mint(2021. 3. 9), "New demat accounts jump to a record high in FY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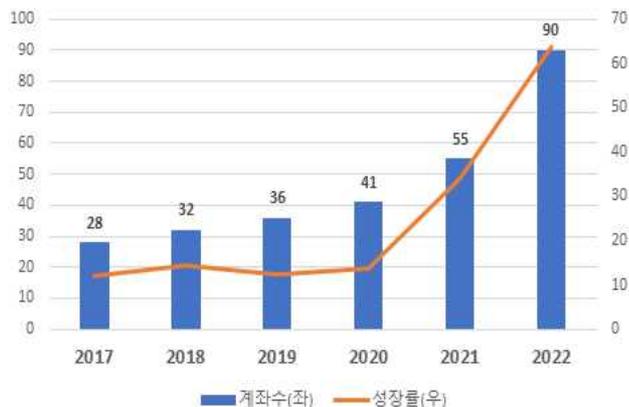
16) CNBC(2022. 1. 31), "The rise of retail investors on D-Street during the pandemic,"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7).

17) NSE(2023), India Ownership Tracker, p.7

18) 인도의 주식계좌 수는 2023년 3월 기준 약 1억 1,114만 개로 집계됨.

그림 6. 인도 주식계좌 수 및 성장률

(단위: 백만 개, %)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계좌 수는 양 기관의 주식 계좌수를 합산함  
자료: CDSL NSDL(검색일: 2023. 4. 30).

그림 7. 인도 주식 거래 비중(주체별)

(단위: %)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NSE(2023), p. 151.

■ 인도 정부가 2014년 시행한 전 국민계좌 정책(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sup>19)</sup>을 통해 은행 계좌를 보유한 국민이 증가했으며,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sup>20)</sup>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빠른 디지털화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한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임.

- 아드하르(Aadhaar)<sup>21)</sup> 기반 전자신원 인증시스템인 e-KYC(Know Your Customer) 및 전자 서명 시스템인 e-Sign은 투자자에게 편리한 시장 접근성을 제공했으며,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sup>22)</sup> 기반의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인 BHIM(Bharat Interface for Money)을 통해 디지털 이체 시스템이 편리하게 구축됨.

■ 2020/21~2022/23년 동안 개인 투자자를 통해 약 2조 8,000억 루피의 대규모 주식 투자자금이 유입되었으며, 2021/22년에만 총 투자 금액의 57%인 약 1조 6,000억 루피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됨.<sup>23)</sup>

- 인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순유입액 약 9,640억 루피)의 약 3배로 집계됨.

- 동 기간 뮤추얼 펀드를 통한 주식 투자(SIP: Systematic Investment Plan)<sup>24)</sup>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월 평균 800억 루피, 2021/22년에는 월 평균 1,040억 루피의 투자자금을 기록하였음.

19) PMJDY는 2014년 인도 정부가 국민의 포괄적인 금융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모든 가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은행 계좌 개설, 금융 이해도 증가, 신용·보험·연금 접근도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 인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도를 디지털화된 지식 기반 사회로 변모시키고자 2015년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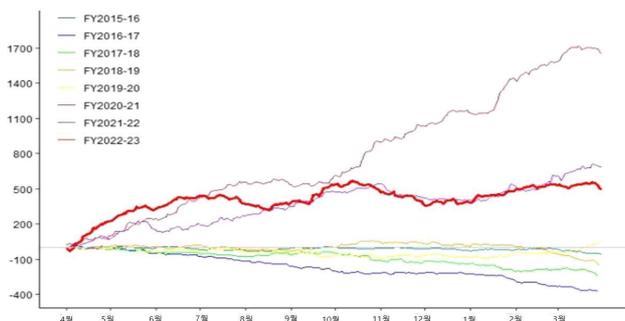
21) 개인 홍채와 지문을 사용하여 시민 개개인에 고유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할 수 있음.

22) 인도의 통합결제시스템(UPI)은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국가결제공사(NPCI)가 개발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23) 2020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금액임. NSE(2023), p.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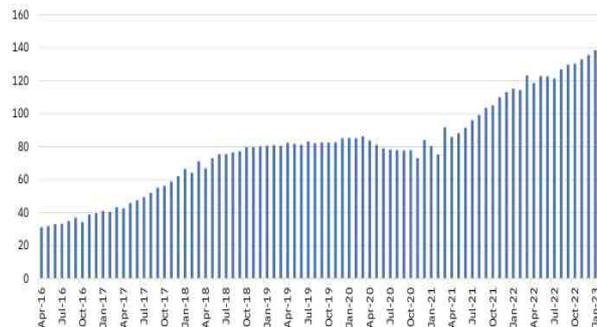
24) SIP은 인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적립식 펀드)하는 방식을 뜻함. NSE(2023), p.170.

그림 8. 인도 개인 투자자를 통한 순 유입액 추이  
(단위: 십억 루피)



자료: NSE(2023), p. 141.

그림 9. 월별 뮤추얼 펀드 유입액 추이  
(단위: 십억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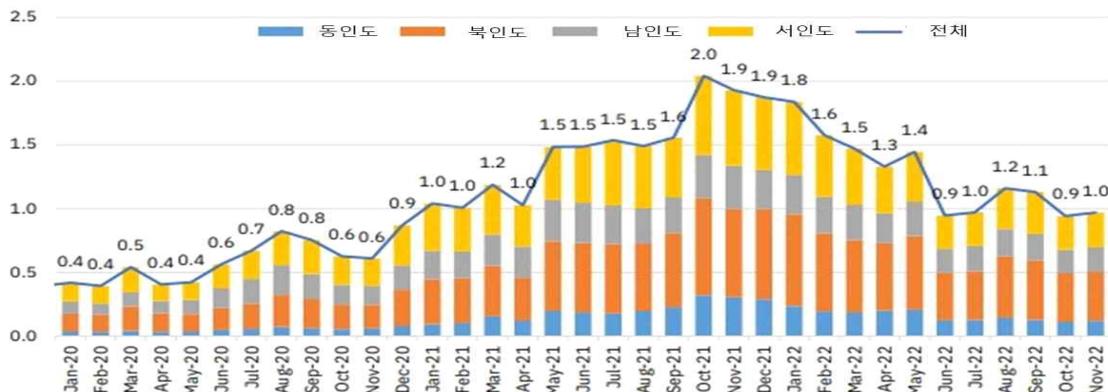
자료: NSE(2023), P. 170.

■ 신규 개인 투자자의 성장 추세와 주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21년 신규 개인 투자자는 2,470만 명 증가했고 이 중 약 60%가 서인도 및 북인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의 신규 투자자는 1,760만 명으로 2020년(710만 명)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2020~21년 신규 투자자의 월 평균 증가율은 7.7%였음.<sup>25)</sup>
- 서인도 및 북인도의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인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 델리 및 우타르프라데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sup>26)</sup>
- 도시별 거래도 신규 투자자의 주별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뭄바이(서인도) 및 델리(Delhi)(북인도)가 각각 1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푸네(Pune)와 벵갈루루(Bengaluru), 아마다바드(Ahmedabad), 수라트(Surat), 자이푸르(Jaipur), 나그푸르(Nagpur)가 그 뒤를 이었음.<sup>27)</sup>

그림 10. 인도 신규 투자자 수 및 투자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백만 명)



주: 그래프 위의 숫자는 월별 신규 투자자 수를 의미함 ①동인도는 미조람, 오디샤, 서벵갈, 아삼, 마니푸르, 아루나찰 프라데시, 트리푸라, 니갈랜드, 메갈라야, 시킴, 차티스가르, ②서인도는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디만, 디유, 고아 ③북인도는 비하르, 자르칸드, 우트라 프라데시, 우타르칸드, हरियाणा, 델리, 펀잡, 짐무카슈미르, 히마찰 프라데시, 친디가르, 라지스탄 ④남인도는 텔랑가나, 케랄라,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폰디체리를 포함함.

자료: NSE(2023). p. 162.

25) NSE(2021), p. 203.

26) 2019/20년 기준 인도의 주별 GDP 상위 4개 주는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우타르프라데시, 구라자트 순이며, 인구수 상위 4개 주는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웨스트벵갈임. CEIC 통계(검색일: 2023. 4. 17).

27) NSE(2022), Vol. 4 p.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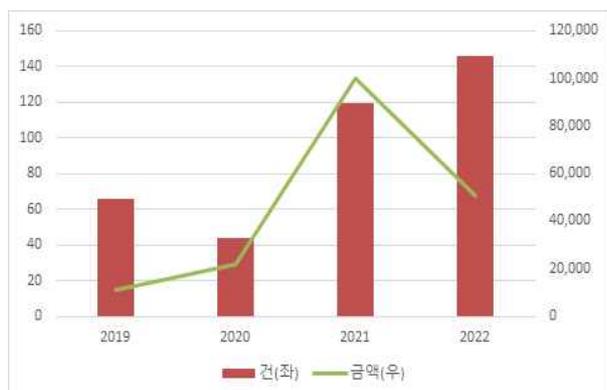
## 나. 정부의 투자 환경 조성

■ 인도 정부는 기업 공개(IPO)를 장려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관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음.

- 2019년 11월 SEBI는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통합결제시스템(UPI)을 사용하여 IP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투자 규모도 기존 20만 루피에서 50만 루피로 확대하였음.<sup>28)</sup>
- 2021년 3월 인도 정부는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가 성장 플랫폼(IGP: Innovators Growth Platform)'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sup>29)</sup>
  - o 기술(IT, 지식 재산권, 데이터 분석, 바이오 등)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경영 실적만 있어도 IPO 추진 허용 △공개매수 한도를 기존 25%에서 49%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공시<sup>30)</sup>요건 완화 등을 추진함.
- 위 외에도 2022년 10월 SEBI는 IPO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정보 공개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기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IPO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Pre-filing)를 도입함.<sup>31)</sup>
  - o 사전 심사 제도는 IPO 이전에 기업정보를 공개해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사가 해당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여러 위험요인을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의 IPO는 2020년 44건에서 2021년 119건으로 170% 증가하였으며, 주식 중개플랫폼을 개발한 Upstox, 에듀테크 기업인 Eruditus, SaaS 분석을 하는 BrowerStack 등 2020~22년 동안 168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였음.<sup>32)</sup>

그림 11. 인도의 IPO 현황

(단위: 건, 백만 루피)



자료: CEIC(검색일: 2023. 4. 23).

표 3. 인도의 주요 유니콘 기업(2020~22)

기업명	업종	기업 가치 (십억 달러)
Cred	핀테크	2.2
Games24x7	게임	2.5
Uniphore Software	SaaS	2.5
BharatPe	핀테크	2.8
Eruditus	에듀테크	3.2
Upstox	핀테크(중개)	3.4
BrowerStack	SaaS	4
PhonePe	핀테크	5.5
Polygon	웹 인프라	10

자료: Venture Intelligence(검색일: 2023. 4. 23).

28) Business Standard(2022. 3. 9), "Sebi raises investment limit via UPI to Rs 5 lakh for retail investo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30).

29) 2015년 인도는 스타트업의 IPO를 장려하기 위해 IIP라는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큰 성과가 없어 2018년 IGP로 이름을 변경하고 연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Centre for Business & Commercial Laws, Innovators Growth Platform: NASDAQ of In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19).

30) 공시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영업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 및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뜻함. 금융위원회 법규FAQ 온라인 자료 발췌(검색일: 2023. 4. 3).

31) Bloomberg(2022. 10. 1), "India's Market Regulator Tightens Disclosure Norms for IPO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7).

32) Invest India, the Indian Unicorn Landscape.(검색일: 2023. 4. 17).

■ 2019년 10월 인도 재무부는 최대 24%로 제한했던 외국인 투자자(FPI)의 주식 지분율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투자 한도와 동일하게 확대하였음.<sup>33)</sup>

- 2023년 4월 기준 인도의 FDI 정책은 지상파 방송, 뉴스 및 시사 TV와 같은 미디어 매체, 멀티 브랜드 소매 분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sup>34)</sup>

표 4. 인도 FDI 분야별 투자 한도

구분	투자 한도	구분	투자 한도
농업 및 축산	100%	방송 운송 서비스	100%
가죽 분야	100%	방송 콘텐츠 서비스	49%(정부 승인 필)
건설 개발: 타운십, 주택, 건축 인프라	100%	병원 건설	100%
공항	100%	생명 공학	74% (정부 승인 부분 필)
관광	100%	석유 정제	49%
멀티 브랜드 소매	51%(정부 승인 필)	섬유 및 의류	100%
단일 브랜드 소매	100%	식품 가공	100%
도로 및 고속도로	100%	인쇄 매체*	26%(정부 승인 필)
디지털 미디어	26%(정부 승인 필)	재생 에너지	100%
면세점	100%	항구 및 물류	100%

주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 간행물과 출판물 포함. 투자 세부 조건 및 절차는 항목별로 상이함.  
자료: DPIIT, Consolidated FDI Policy 2020.

■ 인도 정부는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자본에 대한 소득 및 신규 주식 투자를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함.

- 인도 소득세법 112A조에 따라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뮤추얼 펀드를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을 장기 자본 소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sup>35)</sup>

- 인도 정부는 RGESS(Rajiv Gandhi Equity Savings Scheme) 제도를 통해 연간 소득이 12만 루피 이하인 신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투자 금액(5만 루피)의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2020년 8월 인도 중앙은행(RBI)은 국가의 금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금융교육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Education 2020-2025)을 발표하고 △고등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실시 △금융 교육 기관 설립 △연금 상품 개발을 통한 시민 노후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sup>36)</sup>

33) Economic Times(2020. 4. 3.) "FPI holding limits for all listed stocks raised to sectoral limit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7.) 이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발효되었음. Foreign Exchange Management(Non-debt Instruments) Rules(2019) [https://thc.nic.in/Central%20Governmental%20Rules/Foreign%20Exchange%20Management%20\(Non-debt%20Instruments\)%20Rules,%202019.pdf](https://thc.nic.in/Central%20Governmental%20Rules/Foreign%20Exchange%20Management%20(Non-debt%20Instruments)%20Rules,%202019.pdf).

34) 복권, 게임(카지노), 부동산개발 및 농가 주택 건설(단, 타운십 개발, 주거/상업 시설 건설, 도로 등은 제외), 담배는 투자 금지 항목임. DPIIT, Consolidated FDI Policy(2020).

35) Tax Gur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4).

36) The Hindu(2020. 8. 20), "RBI releases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Educa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30).

## 다. 인도의 거시경제 안정성

■ 인도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기초를 보이면서 인도 주가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sup>37)</sup>

-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코로나 감염자 수 급감으로 대면 활동이 재개하면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률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 o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20/21년 -5.8%를 기록했으나 2021/22년 9.1%로 회복하였으며, 2022/23년은 7%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sup>38)</sup>
- o 2021년 인도의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징수액은 14조 루피로 2020년(10조 9천 억 루피) 대비 30% 증가하였음.

그림 12. 인도 부가가치세 징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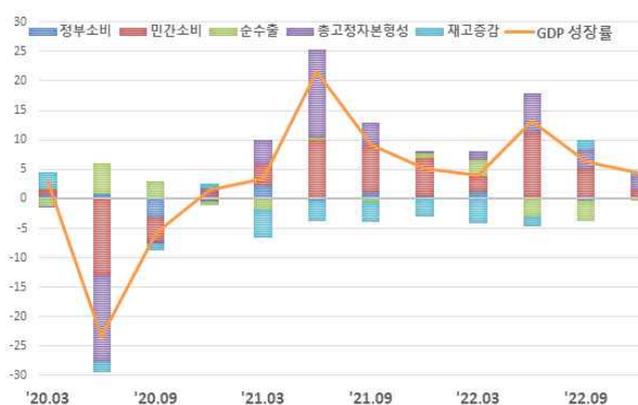
(단위 : 천만 루피)



자료: GST Council(검색일: 2023. 4. 23).

그림 13. 인도 GDP 성장률

(단위 :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Oxford Economics(검색일: 2023. 4. 23).

- 인도 정부의 재정진전화 및 물가 안정정책으로 2020/21년 9.2%까지 확대되었던 재정적자 규모도 2021/22년 6.7%까지 축소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 5.7%까지 하락하였음.<sup>39)</sup>
  - o 인도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해 주요 농산물(밀, 쌀, 설탕) 수출을 제한해 국내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음.
- 모디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4년, 2019년에 이어 2024년 총선에도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치적 상황도 안정적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임.<sup>40)</sup>
  - o 모닝 컨설팅(Morning Consult)에 따르면, 인도 모디 총리의 지지도는 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sup>41)</sup>

37) 김영일(2010)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및 거시경제 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경제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을 안정화하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주식시장의 추세적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시장변동성이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38) Mospi(2023), [https://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NAD\\_28feb23final.pdf](https://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NAD_28feb23final.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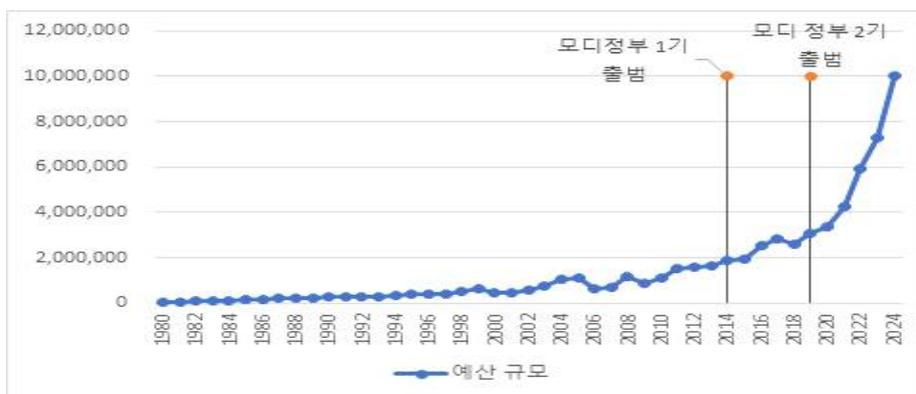
39) 인도 중앙은행의 물가안정화범위는 4±2%임.

40) 김도연 외(2022),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인도 정부는 법인세 인하,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도입,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같은 성장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는 시장에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sup>42)</sup>
  - 2019년 9월 인도 정부는 기존 30%였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했으며, 신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를 15%로 대폭 인하함.<sup>43)</sup>
  - 2020년 3월 인도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를 도입해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출의존도를 축소하고자 생산량 증가를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PLI 연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음.
    - 2023년 3월 기준 PLI 분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약, 특수철강, 통신 및 네트워크 제품, 전자기기, 식품가공, 섬유제품, 태양광 모듈, 화학전지배터리 등을 포함해 15개 분야이며 2020년대 후반까지 35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계획임.<sup>44)</sup>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지출(CAPEX)을 증액하였으며, 2023/24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37% 증액한 10조 루피(GDP의 3.3% 규모)를 할당함(그림 14 참고).
    - 2022/23년 예산안의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35%를 증액한 7조 5,000만 루피였으며, 철도, 항만, 도로, 물류와 같은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sup>45)</sup>

그림 14. 인도 정부의 예산 규모: 자본지출 부문

(단위: 백만 루피)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2024는 2023/24를 뜻함.

자료: CMIE Economic Outlook(검색일: 2023. 4. 23).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저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바탕으로 인도 기업의 매출도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41) Morning Consult, <https://morningconsult.com/global-leader-approval/>(검색일: 2023. 4. 23).

42) CNBC(2023. 1. 18), "Davos 2023: Foreign investors favour India now, says Invest India MD &amp; CEO Deepak Bagl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7).

43) 인도 재정부 보도자료(2019. 9. 20), 「Corporate tax rates slashed to 22% for domestic companies and 15% for new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and other fiscal reliefs」(검색일: 2023. 5. 10).

44) 김경훈(2022), p. 12.

45) 김도연(2022), 2022/23년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동향세미나 제17호

- 인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기준금리를 4%로 동결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보임.
-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관련 기업의 매출은 2021/22년 전년대비 47% 증가했으며, 봉쇄 기간 동안 가정 및 개인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비재 기업 매출도 상승하였음.
  - o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소셜 미디어, 비디오 콜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의 매출은 2020/21년과 2021/22년 각각 17.4%, 15.1% 증가하였음.
- 2021/22년 Nifty50 기업의 이자와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이 원자재(54.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8.7%) 보건의료(25.1%),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음.<sup>46)</sup>

표 5. 인도의 기업 매출액 성장률

(단위: 십억 루피, %)

분야	2020/21년		2021/22년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률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013	17.4	1,165	15.1
소비재	1,347	9.8	1,584	14.9
금융	9,960	15.3	10,442	4.8
보건의료	787	7.9	1,056	18.3
IT	4,398	5.6	5,228	18.9
원자재(에너지 제외)	5,607	7.7%	8,239	47
Nifty50 기업 전체	46,103	-3.7	53,613	25.9

주: 인도 기업은 Nifty50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NSE(2021), Quarterly Earnings Review, p. 4; NSE(2022), Quarterly Earnings Review,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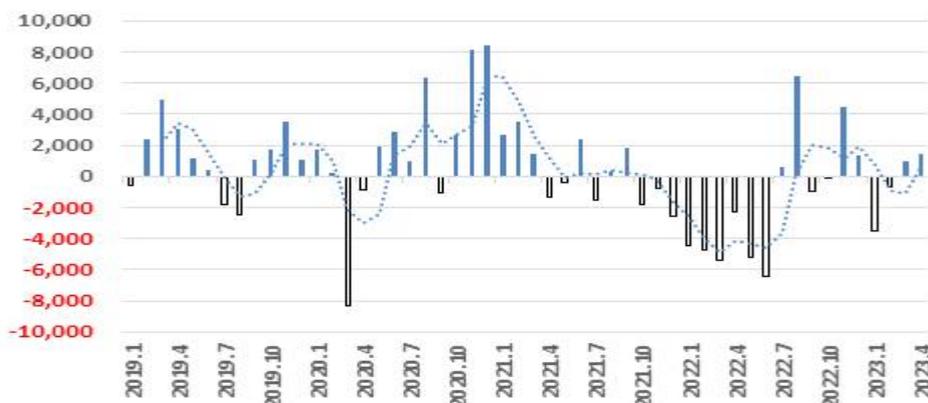
#### ■ 외국인 투자자의 대인도 주식 투자자금은 2020년과 2021년에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2020~22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30억 달러, 37억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2022년에는 165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함.
  - o 2022년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안정성 증가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및 달러 강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리스크를 줄이고자 대인도 주식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166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분석됨.
  - o 2023년 1~2월에는 아다니 그룹 사태(글상자 2 참고)로 39억 달러의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며, 대인도 외국인 투자는 3월을 기점으로 유입세로 전환되면서 4월 말 기준 24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46) NSE(2022), Quarterly Earnings Review, Vol. 3, Issue 4, p. 10.

그림 15. 대인도 외국인 주식 투자 순유입

(단위: 백만 달러)



주: 점선은 3개월 이동 평균을 뜻함.

자료: CEIC(검색일: 2023. 4. 23).

## 글상자 2. 아다니(Adani) 그룹 사태 요약

- 2023년 1월 24일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Hindenburg)가 인도의 아다니(Adani) 그룹 상장사의 과도한 부채, 경영 불투명성 등을 고발해 인도 주식시장에 큰 이슈가 되었음.
- 아다니 그룹은 인도 최대 규모의 인프라 기업으로 항구, 공항, 고속도로, 신재생에너지, 시멘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를 포함해 7개의 계열사가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o Adani Enterprises(광업, 에너지),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항구), Adani Power(전력), Adani Transmission(송배전), Adani Green Energy(재생에너지), Adani Total Gas(가스), Adani Wilmar(소비재)
- 힌덴버그의 발표 이후 아다니 계열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1월 31일 기준 약 750억 달러 규모의 시가 총액이 증발하였고, 아다니 그룹의 회장인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의 개인 재산도 366억 달러 감소하였음.
- 아울러 가우탐 아다니와 모디 총리 간의 정경유착 의혹도 불거져 인도 야당은 모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SEBI는 아다니 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아다니 그룹이 조속히 부채 상환 등을 추진하면서 아다니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3~4월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다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음.

자료: Hinderburg Research(2023. 1. 24), "Adani Group: How The World's 3rd Richest Man Is Pulling The Largest Con In Corporate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3); Adani 그룹 홈페이지(검색일: 2023. 4. 30); Bloomberg(2023. 4. 29), "India's Sebi May Ask Court for More Time on Adani Probe, BS Say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10); Fortune(2023. 1. 31), "Gautam Adani is clinging to the title of Asia's richest person after \$75 billion stock wipeout boots him from the world's top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10).

## 4. 시사점

- 인도의 주식시장은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빠른 디지털화 및 연관 기술 발달, 인도 가계의 금융활동 확대 등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주식시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이었던 2020~22년을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 및 소득 증가에 따라 가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 활동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o CRISIL(2022)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인도 가계의 비중은 6.8%였으나 2022년 3월 9.7%로 성장했으며, 동 기간 보험 상품 투자는 19.7%에서 23.9%로 증가하였음.
- o 연 50만~300만 루피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중산층이 2004/0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였으나 2021/22년 31%로 증가함.<sup>47)</sup>
- 2022/23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평균 5.5%를 기록한 인플레이션도 2023년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sup>48)</sup>

■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는 투자국으로서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인도의 자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정부는 2020년 4월 국제금융서비스센터국(IFSCA: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을 설립했으며, 은행, 보험 및 증권 기관들과 협력하며 인도를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함.
- o 구자라트주에 GIFT(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h)-City를 구축했으며, 2022년 7월 인도 최초의 국제금거래소인 IIBX(India International Bullion Exchange)가 출범되었음.<sup>49)</sup>
- o 2022년 9월 IFSCA는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핀테크 규제 협력에 관련 MOU를 체결하였음.<sup>50)</sup>
- 2023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으로 정상회담과 더불어 자본시장 공동 행사 등을 추진해 협력 분야를 넓히는 한편, 자본시장 인적교류 및 정보 공유, 양국 간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음.
- o 2018년 한국의 금융투자협회는 인도 뭄바이 증권협회(BBF)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3년 4월 주한 인도대사관과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음.<sup>51)</sup>

■ 우리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그린필드) 형태로 인도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므로 현지 법인을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며, 인도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금융 및 보험업으로의 진출과 간접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 진출은 2018년 기준 제조업이 88%였으며, 2022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22.7%), 금융 및 보험업(12%), 정보통신업(7.3%) 등 투자 분야가 많이 다각화되었으나 여전히 제조업(56.3%)이 가장 큰

47) Business Standard(2022. 11. 2). "One out of every three Indians 'middle class'; to double by 2047: Report,"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7).

48) Economic Survey 2022/23,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94932>.

49) GIFT-city는 2021년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의 신흥금융센터로 선정됨.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경제 동향;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346485&page=1](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346485&page=1)(검색일: 2023. 4. 3).

50) IFSCA(2022. 9. 18). 「MAS and IFSCA to Pursue Cross-border FinTech Innovation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3. 4. 23).

51) 금융투자협회(2023. 4. 4),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3. 4. 23).

비중을 차지함.<sup>52)</sup>

- 3M, 네슬레(Nestle),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지멘스(Siemens) 등 많은 해외 기업이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상장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sup>53)</sup> 마루티 스즈키의 경우 2003년 7월 IPO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약 99억 루피를 조달하였음.<sup>54)</sup>
- 2023년 4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기관은 159개로, 미국(3,485개), 룩셈부르크(1,353개), 모리셔스(589개), 싱가포르(569개), 일본(442개)보다 적은 편임.<sup>55)</sup>
  - o 미국의 대인도 주식투자 규모는 20조 루피로 투자 국가 중 가장 크며, 최근 싱가포르의 대인도 주식 투자가 3조 7,000억 루피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였음.<sup>56)</sup> KIEP

52)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검색일: 2023. 4. 20).

53) List of Foreign Companies Listed in India. FinEmerg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0).

54) Rediff(2003. 6. 21), "Maruti IPO fixed at Rs 125 per shar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8).

55) NSDL FPI Moni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8).

56) 2019년 싱가포르의 대인도 FPI규모는 2조 루피로 세계 4위였으나 같은 해 8월 '가변자본기업(VCC)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인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VCC 제도는 각종 펀드를 운용하는 법인에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승인 절차나 공시 부담 없이 다양한 금융 섹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동아일보(2023. 3. 31), "한국선 글로벌 금융사 줄줄이 떠나는데... 싱가포르엔 자산관리社 3년새 2배로," (검색일: 2023. 5. 8).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경훈. 2022.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도연, 백종훈, 김정곤. 2022.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도연. 2022. 「2022/23년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지역연구 동향 세미나 제 17호.
- 김도연. 2023. 「2023/24년 인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지역연구 동향 세미나 제3호.
- 김영일. 2010.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동성의 거시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0-16. KDI.
- 김준석. 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성과비교». 자본시장연구원 2020-20호.
- 도이치 뱅크. 2020. 「나마스태 인디아」.
- 미래에셋 리서치. 2022. 인도, Global Industry Report(2022. 12. 5).
- 신술위. 2021. 「최근 인도 외국인 주식자금 증가 배경 및 평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 [영문자료]

- CRISIL. 2022. The big shift in financialisation, Market Intelligence & Analytics.
- DPIIT. 2020. Consolidated FDI Policy(2020).
- NSE. 2021. Market Pulse. Vol 3, Issue 11.
- \_\_\_\_\_. 2021. Quarterly Earnings Review. Vol. 2, Issue 4.
- \_\_\_\_\_. 2022. Market Pulse. Vol 4, Issue 10.
- \_\_\_\_\_. 2022. Quarterly Earnings Review. Vol. 3, Issue 4.
- \_\_\_\_\_. 2023. Market Pulse. Vol. 5, Issue 3.
- \_\_\_\_\_. 2023. India Ownership Tracker. Vol. 4, Issue 2.
- OECD. 2020. Ownership Structure of Listed Companies in India.

### [온라인 자료]

- 금융위원회 법규 FAQ. [https://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8799&lineNo=481](https://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8799&lineNo=481)(검색일: 2023. 4. 3).
- 금융투자협회(2023. 4. 4).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 [https://www.kofia.or.kr/npboard/m\\_108/view.do?nttId=131599&bbsId=BBSMSTR\\_000000000203&srchWord=&srchTp=&page=1](https://www.kofia.or.kr/npboard/m_108/view.do?nttId=131599&bbsId=BBSMSTR_000000000203&srchWord=&srchTp=&page=1)(검색일: 2023. 4. 23).
- 동아일보(2023. 3. 31). “한국선 글로벌 금융사 줄줄이 떠나는데… 싱가포르엔 자산관리社 3년새 2배로”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31/118608934/1>(검색일: 2023. 5. 8).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경제 동향.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346485&page=1](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346485&page=1)(검색일: 2023. 4. 3).

- 파이낸셜 뉴스(2021. 11. 18). “버핏·마윈·손정의도 투자… 인도 최대 IPO ‘페이티엠’ 상장.” <https://www.fnnews.com/news/202111181747182383>(검색일: 2023. 4. 17).
- Bloomberg(2022. 10. 1). “India’s Market Regulator Tightens Disclosure Norms for IPO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30/india-s-market-regulator-tightens-disclosure-norms-for-ipos>(검색일: 2023. 4. 17).
- \_\_\_\_\_. (2023. 4. 29). “India’s Sebi May Ask Court for More Time on Adani Probe, BS Say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29/india-s-sebi-may-ask-court-for-more-time-on-adani-probe-bs-says>(검색일: 2023. 5. 10).
- BSE 홈페이지. [www.bseindia.com](http://www.bseindia.com)(검색일: 2023. 4. 17).
- Business Standard(2022. 11. 2). “One out of every three Indians ‘middle class’; to double by 2047: Report.”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every-one-in-three-indians-middle-class-to-double-by-2047-report-122110200522\\_1.html](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every-one-in-three-indians-middle-class-to-double-by-2047-report-122110200522_1.html)(검색일: 2023. 4. 17).
- CDSL 홈페이지. <https://www.cdslindia.com/>(검색일: 2023. 4. 30).
- Centre for Business & Commercial Laws, Innovators Growth Platform: NASDAQ of India. <https://cbcl.nliu.ac.in/capital-markets-and-securities-law/innovators-growth-platform-nasdaq-of-india/>(검색일: 2023. 4. 19).
- CNBC(2020. 11. 31). “How the pandemic drove massive stock market gains, and what happens next.” <https://www.cnbc.com/2020/12/30/how-the-pandemic-drove-massive-stock-market-gains-and-what-happens-next.html>(검색일: 2023. 4. 17).
- CNBC(2022. 1. 31). “The rise of retail investors on D-Street during the pandemic.” <https://www.cnbc18.com/videos/the-rise-of-the-retail-investor-during-the-covid-19-pandemic-12245932.htm>(검색일: 2023. 4. 17).
- CNBC(2023. 1. 18). “Davos 2023: Foreign investors favour India now, says Invest India MD & CEO Deepak Bagla.” <https://www.cnbc18.com/economy/davos-2023-invest-india-md-ceo-deepak-bagla-change-in-foreign-investors-narrative-fdi-india-growth-leadership-15683901.htm>(검색일: 2023. 4. 17).
- Economic Times(2020. 4. 3). “FPI holding limits for all listed stocks raised to sectoral limit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markets/stocks/news/nsdl-and-cdsl-raise-fpi-limits-for-stocks-to-sectoral-limits/articleshow/74966264.cms?from=mdr> (검색일: 2023.4.17.)
- FATF 홈페이지. <https://www.fatf-gafi.org/en/home.html>.
- Foreign Exchange Management (Non-debt Instruments) Rules. 2019. [https://thc.nic.in/Central%20Governmental%20Rules/Foreign%20Exchange%20Management%20\(Non-debt%20Instruments\)%20Rules,%202019.pdf](https://thc.nic.in/Central%20Governmental%20Rules/Foreign%20Exchange%20Management%20(Non-debt%20Instruments)%20Rules,%202019.pdf).
- Fortune(2023. 1. 31). “Gautam Adani is clinging to the title of Asia’s richest person after \$75 billion stock wipeout boots him from the world’s top 10.” <https://finance.yahoo.com/news/gautam-adani-clinging-title-asia-100307352.html>(검색일: 2023. 5. 10).
- GST Council 홈페이지. <https://gstcouncil.gov.in/>(검색일: 2023. 4. 23).
- Hinderburg Research(2023. 1. 24). “Adani Group: How The World’s 3rd Richest Man Is Pulling The Largest Con In Corporate History.” <https://hinderburgresearch.com/adani/>(검색일: 2023. 4. 23).
- IFSCA(2022. 9. 18). 「MAS and IFSCA to Pursue Cross-border FinTech Innovations」. <https://www.ifsca.gov.in/news/NewsDetail?id=22>(검색일: 2023. 4. 23).

- Invest India 홈페이지. <https://www.investindia.gov.in/indian-unicorn-landscape>(검색일: 2023. 4. 17).
- KRX 홈페이지. <http://data.krx.co.kr/contents/MDC/MAIN/main/index.cmd>(검색일: 2023. 4. 24).
- Legal service in India. <https://legalserviceindia.com/legal/article-7639-promoter-to-person-in-control-approach-of-sebi.html>(검색일: 2023. 4. 10).
- List of Foreign Companies Listed in India. <http://finemergia.com/list-of-foreign-companies-listed-in-india>(검색일: 2023. 4. 20).
- Ministry of Finance. 「Corporate tax rates slashed to 22% for domestic companies and 15% for new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and other fiscal reliefs」.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585641>(검색일: 2023. 5. 10).
- Mint(2021. 3. 9). “New demat accounts jump to a record high in FY21.” <https://www.livemint.com/news/india/new-demat-accounts-jump-to-a-record-high-in-fy21-11615229292551.html>(검색일: 2023. 4. 20).
- MoSPI.(2023. 2. 28). [https://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NAD\\_28feb23final.pdf](https://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NAD_28feb23final.pdf).
- NSDL FPI Monitor. <https://www.fpi.nsdl.co.in/web/Reports/ReportDetail.aspx?RepID=92>(검색일: 2023. 5. 8).
- NSDL 홈페이지. [www.https://nsdl.co.in/](http://www.nsdl.co.in/)(검색일: 2023. 4. 30).
- NSE 홈페이지. [www.nseindia.com](http://www.nseindia.com/)(검색일: 2023. 4. 17).
- Rediff(2003. 6. 21). “Maruti IPO fixed at Rs 125 per share.” <https://www.rediff.com/money/2003/jun/21maruti.htm>(검색일: 2023. 5. 8).
- SEBI 홈페이지. [www.sebi.gov.in](http://www.sebi.gov.in/)(검색일: 2023. 4. 17).
- Tax Guru. <https://taxguru.in/income-tax/applicability-section-14a-ltcg-exemption-rs-1-lakh.html>(검색일: 2023. 4. 24).
- Trendlyne 홈페이지. <https://trendlyne.com/equity/share-holding/1127/RELIANCE/latest/reliance-industries-ltd/>(검색일: 2023. 4. 17).
- Venture Intelligence 홈페이지. <https://www.ventureintelligence.com/Indian-Unicorn-Tracker.php>(검색일: 2023. 4. 23).

## [통계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검색일: 2023. 4. 20).
- CEIC(검색일:2023. 4. 10, 17).
- CMIE Economic Outlook(검색일: 2023. 4. 23).
- WFE. Monthly insight(검색일:2023. 4. 10, 17, 24).
- World Bank 통계(검색일: 2023. 4. 10).